

높은연봉·복지제도 등 다양한 혜택 ‘눈길’

[인기 직종 승무원]

급여 신입 기준 3500~4000만원...비행수당 등 포함시 경증 평균 근무시간 80시간·노동 강도 ↑...90% 할인 항공권 제공

항공사 승무원이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각 항공사에서는 승무원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혜택 등을 알아보자.

직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연봉은 일반 대기업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복지 혜택도 대기업에 견줘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승무원의 급여는 본봉, 비행수당, 해외체제비, 기타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데 인턴 기간을 끝낸 정규직 신입 사원 기준으로 연봉은 대략 3500~4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행수당, 해외체제비,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이 붙을 경우 실제 받는 급여는 훨씬 많아진다. 다만 비행시간, 근무연수, 직급에 따라 연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평균 근무시간은 일반 사무직 직원들과 비교할 때 훨씬 짧은 편이지만 강도는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내 대형 항공사 승무원들은 한달 기준으로 80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우 58~69시간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형 항공사 승무원들은 한주당 20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면된다. 비행을 위한 준비에 투자되는 시간 등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하자면 80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한달 근무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 80시간 동안 승객들의 서비스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아 노동 강도가 세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제주 노선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갈때 14시간 비행, 올때 14시간 비행 등이 근무시간으로 잡힌다. 현지에서 약 3일간 체류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단거리 노선의 경우 1시간 비행 노선 기준으로 왕복 40회 정도 항공기에 탑승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인천~제주, 김포~제주 노선 등도 1일 1회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승무원들은 장거리 노선과 단거리 노선을 적절하게 활용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CC의 경우 국내선 하루 편도 4편(왕복2회) 비행, 국제선 일본 중국의 경우 왕복 1회, 동남아·대양주는 편도 1편 비행 후 현지 숙소에서 1박~2박 후 다시 돌아오는 패턴으로 근무한다.

항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꼽자면 항공권 90% 할인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승무원 본인에게는 90% 할인, 직계가족에게도 할인률이 적용된다.

A항공사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연간(왕복) 25~35매의 90% 할인 항공권이 제공된다. 할인 항공권은 직계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 직원 결혼 20년, 30년 장기 근속자에게는 특별 항공권이 제공된다.

B항공사는 직원과 가족을 위한 90% 할인 항공권을 따로 제공한다. 또 승무원 본인 90% 할인, 직계가족 50% 할인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항공사도 있다.

여 승무원이 많은 특성 상 출산·육아 휴직, 보육비 지원 등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육아휴직은 임신을 한 직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출산 후 1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한 승무원은 "비행기에서의 근무는 기압 등의 영향으로 지상에서 근무할 때보다 체력 소모가 크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임신 기간에 휴직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뉴스스

‘인기 고공행진’ 여승무원 퇴직률이 높은 이유는?

국내 항공사들은 여승무원들을 위한 출산·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등 복지 제도를 잘 갖추고 있지만 결혼 후 여승무원들의 퇴직률은 일반 사무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낮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높은 연봉과 멋진 유니폼을 입고 해외 곳곳을 누비며 선망의 직장으로 꼽히는 여승무원들이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적성 및 업무 강도, 결혼 및 육아 등이 승무원의 퇴직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안에서 식사 카트를 나르고 승객들의 편의와 서비스 안전까지 책임지는 일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네티즌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통해 "승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한다"며 "일부 승객들의 무례하고 거친 행동도 근무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승무원들의 높은 근무 강도 및 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입사후 3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승무원이 다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승무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또 다른 이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스트레스 견디지 못해 나가는 경우도 많아 결혼 후 육아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결정하는 이들도 다반사

유는 결혼에 따른 육아 부담 등을 꼽을 수 있다. '승무원과의 연애는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불리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애를 할 때는 승무원인 여자친구를 쫓아 함께 해외 여행을 즐기며 즐거운 시

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결혼 후에는 비행을 지주 나서야 하는 승무원들의 근무 형태가 오히려 결혼 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를 낳은 뒤 육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승무원들은 임신을 한 직후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복직을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내가 비행을 떠났을 경우 남편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남편의 독방 육아가 시작된다.

남편이 3~4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직업이라면 맞벌이가 가능하겠지만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돌보기 위한 지출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남편이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직종이라면 추가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승무원 가정이 시댁 또는 친정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거나 따로 살더라도 인근에 집을 얻어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육아를 하기도 한다. 아이를 더욱 잘 키우기 위해 퇴사를 결정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개를 출산하는 경우는 승무원의 퇴직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두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비행을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승무원과 결혼 한 직장인 A씨는 "남성들이 승무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연애를 할 때와 결혼을 한 뒤 육아문제로 인한 남편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결혼한 승무원들의 퇴직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